

이 보도자료는 '24. 4. 21.(일) 09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.



서울남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황우진
전화 02-3219-4420 / 팩스 02-3219-2397

보도자료

2024. 4. 21.(일)

『라임 사태』 재수사 결과 500억 원대 금융 비리 추가 규명

- 라임 자금 300억 원을 불법 도박장 인수 등에 사용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(부장검사 하동우)는 이른바 「라임 사태」와 관련하여 라임자산운용 前부사장 A(징역 20년 확정, 수형중)와 공모하여 불법 카지노 인수에 펀드자금을 사용한 메트로폴리탄 그룹 前임원 B, C를 특경법위반(사기) 등 혐의로 오늘(4. 19.) 구속기소하고, A와 라임 前임원 D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-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하여, 500억원대 금융사기 및 라임 관련 형사 재판에서 이루어진 사법방해 행위 등을 밝혀냈습니다.
 - (이슬라 카지노 사기) A, E(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)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불법 도박장(E-정켓방)이 설치된 필리핀 이슬라 카지노를 인수하려는 목적임에도 메트로폴리탄 그룹에서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를 받는 것처럼 라임자산운용 측을 속여 펀드 자금 300억원을 편취한 사실,
 - (프로방스 법인 사기) B, C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결정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여, 개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숨긴 채 정상적인 사업인 것처럼 위장하고 허위 재무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펀드 자금 210억 원을 편취한 사실,
 - (위증교사·위증) A가 '라임 사태' 관련 특경법위반(수재등) 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 B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요구하고, 이에 B가 위증함으로써 A의 공소사실 주요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·확정된 사실이 이번 수사로 확인된 것입니다.

- '라임 사태' 발생 이후 진행된 다각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E 등 주요 피의자들의 해외도주, 관련자들의 조직적 수사 방해 등으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 확인이 어려웠으나, 검찰은 '24.1. 수사팀을 재편한 후 본격 수사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펀드 관련 비리의 핵심적 사실관계를 밝혀냈습니다.
- 한편,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을 위해 피고인들의 일부 자산에 대해 보전결정을 받아 동결 조치를 완료하고,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
- 검찰은 해외 도주한 라임 사태 주범 E와 측근 F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 중인바,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1 피고인

	피고인	지위	죄명	처분
1	A (45세)	前 라임자산운용 부사장	특경법위반(사기, 배임), 위증교사	수형 중 추가 기소
2	B (45세)	前 메트로폴리탄 그룹 최고재무관리자	특경법위반(사기, 횡령, 배임), 위증 등	구속 기소
3	C (50세)	前 메트로폴리탄 그룹 총무이사	특경법위반(사기, 횡령, 배임), 사문서위조 등	구속 기소
4	D (47세)	前 라임자산운용 부동산본부장	특경법위반(사기)	불구속 기소

※ E(메트로폴리탄 회장)와 F(E의 친척으로 도피에 관여)에 대하여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 중

2

공소사실 주요 내용

「이슬라 카지노」 인수 관련

- (A, B, C, D) '18.12. A, E가 라임 펀드자금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장 (이른바 E-정켓방)이 설치된 이슬라 카지노를 개인적으로 인수할 계획임을 숨긴 채, 라임펀드의 「위험관리실무위원회」에 허위 투자심사 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기망하여 라임펀드 자금 300억원 편취 [특경법위반(사기) 등]

『프로방스 법인』 인수·운영 관련

- (B, C) '19.4. 문화상업단지인 파주 프로방스 법인을 개인적으로 인수할 계획임을 숨긴 채, 도관업체를 급조한 후 이를 통해 투자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라임 측에 허위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망하여 라임펀드 자금 210억원 편취 [특경법위반(사기)]
- (B, C) '19.4.~'21.3. 프로방스 법인 운영 과정에서 허위 급여로 약 5,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 64억원 횡령 [특경법위반(횡령) 등]

위증교사·위증

- (A, B) A가 직무에 관하여 E로부터 25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'20.8. 기소된 특경법위반(수재등) 재판에서, A는 B에게 '검찰 진술을 번복하라'고 서신을 보내 위증을 교사하고, '21.4. B는 그에 따라 위증 [위증교사·위증]

관련 재판 경과 등

- [공소사실] A는 E 등과 라임 자금이 투자된 메트로폴리탄 계열사 지분을 서로 나누기로 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B 명의로 등재했고, 이후 해당 계열사가 매각되자 지분 비율(B 명의 지분)에 따라 25억원 상당을 수수하여 특경법위반(수재등) 등
- [재판 경과] 1심 재판에서 'A가 계열사 지분을 B 명의로 차명 보유'한 것인 지 여부가 쟁점이 되자, A는 B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하고, 이에 B는 '21.4. 'A가 지분을 차명 보유한 사실이 없다'고 위증하여 이 부분 무죄 선고되고, 항소·상고 기각으로 '22.11. 확정됨

3

수사 경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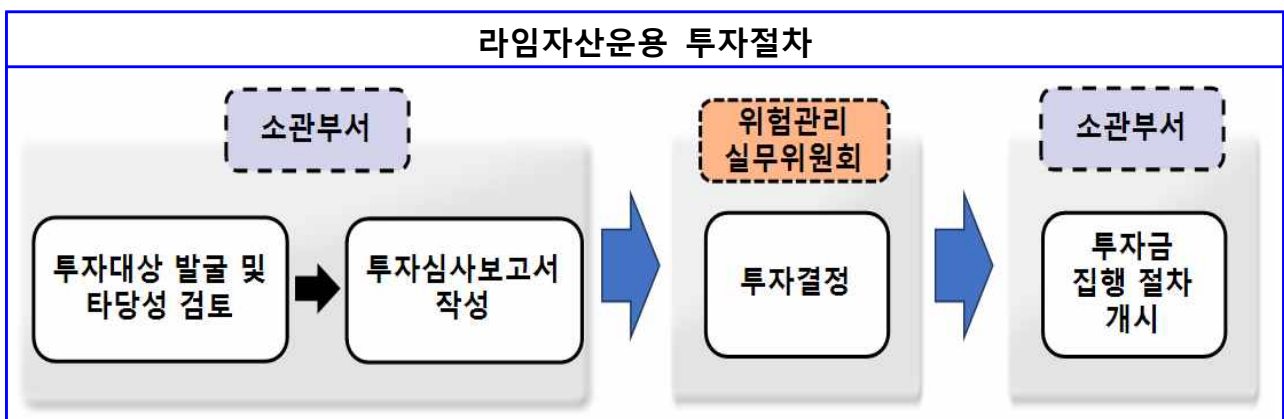
- '24. 1. 라임 전담수사팀 재편(부부장 1명, 검사 4명)
※ 2월 인사 후 부부장 2명, 검사 5명으로 수사팀 확대
- '24. 1. 30. 프로방스 법인 사무실 등 10곳 압수수색
- '24. 3. 11. B·C 주거지 등 9곳 압수수색
- '24. 4. 19. B·C 구속기소, A·D 불구속 기소
※ A는 '22. 6. 23. 서울고법에서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징역 20년, 벌금 48억원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남부구치소 수형 중

4

수사 결과

투자결정 구조의 취약점을 악용한 거액 사기

- [라임 투자결정 구조]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절차는 「① 투자 대상 발굴 및 타당성 검토(소관부서) → ② 투자심사보고서 작성(소관부서) → ③ 투자 결정(위험관리실무위원회) → ④ 투자금 집행(소관부서)」으로 요약되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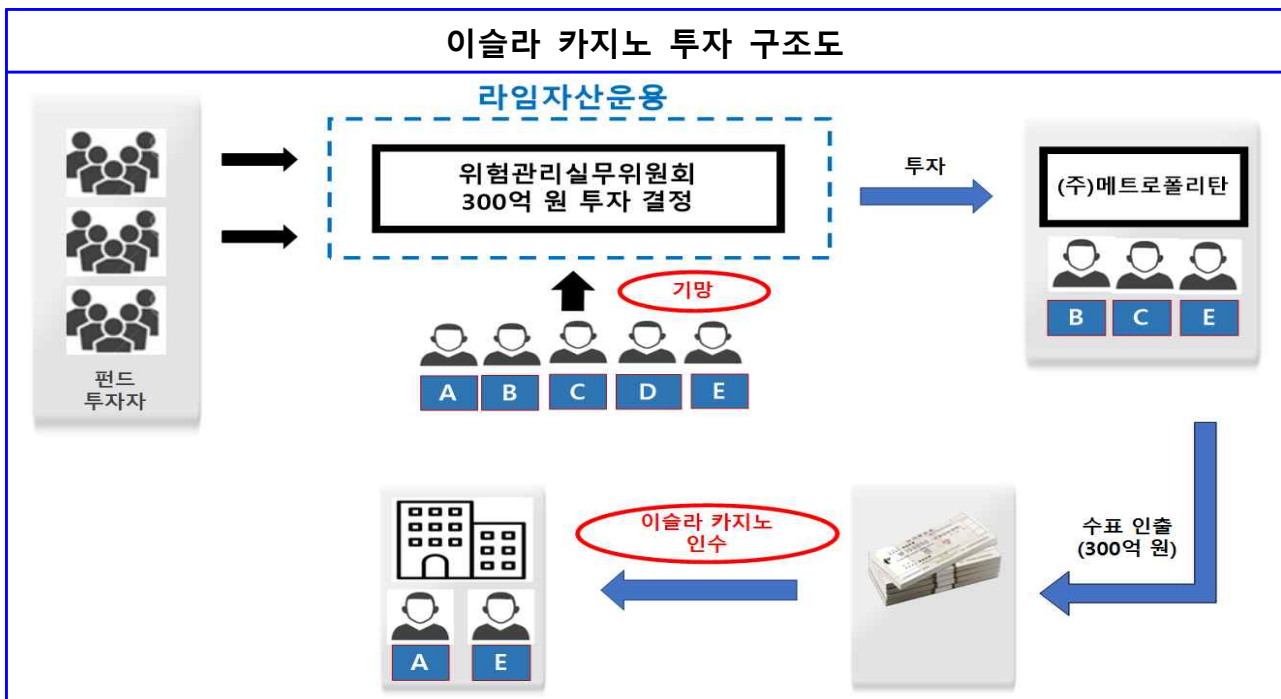


- ▲ 위험관리실무위원회는 주로 투자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며, ▲ 투자심사보고서는 투자 대상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여 작성되는 구조임
- 결국, 이러한 투자결정 구조 하에서는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권한자와 투자대상 회사가 유착될 경우, 잘못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

- A 등은 권한을 남용하여 이러한 투자 결정 구조의 취약점을 파고들어, 허위 또는 조작된 심사 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위험관리실무위원회를 적극 기망하여 거액의 금융사기 피해를 야기함
- [대규모 피해 발생] 라임 펀드 자금 3,550억원 상당이 A의 주도 하에 메트로폴리탄에 투자되었고, 현재까지도 2,200억원 상당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투자자들은 천문학적 피해를 입었지만, 주범인 E 등의 국외 도주로 피해 회복은 아직까지도 요원한 상황임
- 이번 재수사로 라임펀드 투자결정 구조의 취약점이 명확히 확인되었고, 이를 악용한 라임 측 구성원의 범행 가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예정임

펀드 자금을 개인 치부 수단으로 삼은 도덕적 해이

- [이슬라 카지노 인수 관련] A와 E는 이슬라 카지노를 법인의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개인 재산 증식을 위해 인수하기로 모의하여 라임펀드 자금 300억원을 편취하고, 카지노 수익을 상호 분배하기로 하는 등 타인의 투자금을 개인적 치부 수단으로 삼았음



- 이슬라 카지노는 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온라인 도박장(이른바 E-정켓방, '17.11. 기준 월매출 약 30억원)이 설치된 곳인바, 그 수익·매출의 대부분이 E-정켓방에서 나오고 있음

이슬라 카지노 현장 사진



- A는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으로서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펀드 자금을 적정하게 운용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,
 - 투자 대상회사와 유착하여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위원을 기망하여 거액 투자금을 불법 도박장에 투자하는 등 준법감시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피해를 라임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했으며, 심지어 E로부터 해당 투자와 관련하여 이슬라 카지노 지분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함
- [프로방스 법인 인수·운영 관련] B와 C도 위와 같은 투자결정 구조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프로방스 법인을 개인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라임 자금 210억원을 편취하였음
 - 인수 후에는 ▲허위 자문계약 체결 ▲배우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지급 등 수법으로 법인 자금 70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착복함
 - ※ 프로방스 법인 : 문화상업단지(쇼핑몰, 식당, 카페)를 소유·임대·운영하는 법인
- 이와 같이 펀드 자금을 ‘눈먼 돈’으로 인식하는 자산운용사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가 ‘라임 사태’ 촉발의 주된 원인이었음이 다시 확인되었음

중대한 사법방해 범죄 엄단

- 검찰은, A가 라임 사태 관련 재판 과정에서 B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사실 관계를 왜곡함으로써 무죄를 선고·확정받은 사법방해 행위를 밝혀냄
 - A는 특경법위반(수재등) 사건 1심 재판에서, ‘A가 메트로폴리탄 계열사 주식을 B 명의로 차명 보유’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하였고, B는 그에 따라 위증하였음

A가 B에게 보낸 서신 중 발췌

받은 뒤들)라면, 또 내가 주장하듯 너 내 차명이라 그것이 다
내거라면 우리 둘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것같다. 내 장은
가운 (5년에 메트로폴리탄 돌려막기 + 두레코 회수 10년이상 나가고
비용도 2억 x 3, 약 7500만 내지 않을거임고, 그 돈들이 다
추적가능도 있다. 그러면 내가 그 돈이 내돈임을 인정하고 내게
(중략)

우리 변변자들은 그냥 너도 권술대로 다 인정하려면 보 힘경으로
고소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, 그건 기강 하기싫도 않다
(중략)

꿈 꼬인듯하라. 천야, 터마나, 그리고 ■■■■ 는 위해서라도
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어떤가 생각한다. 다행이 내가 권술을 잘
(중략)

그러면 누가 자명인지는 애매하지만 공대본 코지 중이 되고 내가 너
고소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. ■■■■ 는 배당금으로 ■■■■ 주 수 생 들

- A는 투자 대상 회사로부터 무려 25억원 상당의 지분을 제공받는 등 펀드를 재산증식 도구로 이용하는데다가, 그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에서는 위증을 교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형사사법시스템을 농락한 것으로, 이번 수사를 통해 그러한 거약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되었음

5 수사의 의의

대형 펀드 비리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경고

- '라임사태' 관련 수사는 E의 해외 도주 등으로 일시 중단된 바 있으나, 검찰은 '24.1. 라임펀드 관련 사기 혐의를 포착하여 전담 수사팀(부부장 1명, 검사 4명)을 구성하고 금감원 인력을 지원받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사를 전면 재개하였음

※ A는 라임펀드 자금 3,550억원 상당을 E의 메트로폴리탄 그룹에 투자했고, 그 중 2,200억원 상당이 미상환 상태

- 라임 사태 주범 A가 투자 대가로 투자 대상 회사 지분을 취득했다는 의혹은 그간 진상이 은폐되어 왔으나, 이번 수사로 A와 E와 공모하여 펀드자금을 편취하고, 그 투자대상 사업 지분을 나눈 사실이 규명되었음

※ 기존 수사에서는 이슬라 카지노 관련자들의 증거은폐, 진술조작으로 비리의 실체가 암장되었으나, 재수사 과정에서 메트로폴리탄 법인이 카지노 소유자임에도 수년째 아무런 수익을 정산받지 못한 사실을 단서로 결국 실소유자 규명에 성공한 것임

- 수사팀은 이번 수사에서, '사리사욕을 앞세워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대형 펀드비리 관련자들은 반드시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'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최선을 다하였음

실체 규명을 위한 압수수색의 중요성 확인

- '24. 1. 검찰의 수사 재개 이후, 관계자들의 말맞추기, 관련 자료 삭제·은닉 등 조직적 수사방해로 증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
- ※ '24. 1. 30. B, C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, '4년 전 범죄 관련 증거물이 현재 주거지에 있을 가능성이 없다'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음
- 검찰은 주요 관계자 조사, 금융거래분석 등을 통해 압수 필요성을 추가 소명한 후, '24. 3. 7.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, 영장 집행으로 B가 은닉한 4년 전 휴대폰을 압수함으로써 공범들의 내밀한 범행 공모 내용 등 핵심증거를 확보하여 비리의 전모를 규명하게 되었음

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

- 검찰은 펀드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수사 착수와 함께 프로방스 법인의 약 20억원 상당 주식에 대한 추정보전을 신속하게 완료하였고, 그 외 피고인들의 자산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

6 향후 계획

- 검찰은 해외 도주한 라임 사태 주범 E와 F(E의 6촌 형)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수배 요청하여 현재 추적 중인바, 이들의 소재는 물론 취득한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박탈할 것임
-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음 〰